

# 우루과이의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sup>1)</sup>

허 덕\*, 김태련\*\*

## 1. 머릿말

지역 내에서의 관세 철폐와 역외 공동관세 실시를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관세동맹인 메르코수르(Mercosur<sup>2)</sup>)를 1995년에 발족하였다. 메르코수르는 2019년 7월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한 바 있으며, 캐나다, 한국과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과의 협정에 관해서도 메르코수르 각 국 수뇌와 재계업계로부터 협의 개시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경제제휴협정(EPA)을 진행 중).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1) 이 글은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 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를 기초로 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원고화 것이다.

\*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책임자 및 편집인

\*\* KREI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담당자

2)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영문 정식 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이며, 사무국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소재해 있다. 1991년 아순시온 협약 체결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단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받는다. 메르코수르는 물류·인력·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추구하고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서 단순한 경제블록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창설 당시 회원국 간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58억 달러로 급증했다. 회원국 정부들도 메르코수르 공고화를 위한 관세동맹 완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세동맹을 넘어 재정통합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회원국은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의 정식 가입 승인이 나면서 5개국으로 늘었으나, 2017년 7월 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당분간 정지됐다.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외교장관은 2017년 7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복구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는 2012년 가입하며 4년 안에 정회원국 요건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메르코수르는 1998년 우수아이아 의정서에 근거해 회원국에 정치범을 풀어주고 민주주의로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구성원인 4개 국가 모두 농업생산이 활발하다. 그 중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대한 연구나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 두 나라 중 우선 우루과이의 농업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루과이는 2020년에 일본에 쇠고기 수출을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기 위해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sup>3)</sup>)의 형태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결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에 우루과이의 농업에 대하여 국제기관에 의한 통계 등의 공개정보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농업생산 등의 상황에 관한 고찰에 앞서, 전제가 되는 자연, 정치·경제 등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 1.1. 국가 개요

국가의 정식 명칭은 우루과이 동방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이다.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을 형성하는 우루과이 강 동쪽에 위치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우루과이 북동쪽은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외에 남쪽방향은 대서양에 면해 있다. 남위 30~35° 에 위치하며,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해당한다. 기후적으로는 온난습윤기후<sup>4)</sup> 지역에 속한다.

3)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상호간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준거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체결로 명칭과 내용이 일정하지는 않다. 광의의 무역협정은 (1)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적 원칙, 선박의 대우, 관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협의의 무역협정, (2) 협의의 무역협정에 부수하여 일정기간의 무역의 품목과 수량을 정한 무역계획, (3) 무역과 관련한 지불방법을 정한 지불협정(금융협정 · 통화협정이라고도 한다)의 3요소를 포함하고, 때로는 통상협정이라고도 하지만 3요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통상 항해조약(통상조약)이 무역관계 이외의 일반적 경제교류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중요규정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에 걸쳐 유효한 것과 비교하여, 규정된 사항의 범위가 좁고, 단기 또는 잠정적이다. 협의의 무역협정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수출입 품목에 관하여 수량, 예산금액, 결제방법 등의 기술적·행정적 세목을 규정하고 보통, 당기간의 무역관계가 대상이 된다. 특정의 1차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해서 정한 것을 국제상품협정이라고 한다. 지불협정은 보통 수출입 기타의 수지와 관련하여 지불내용, 환율, 협정예산의 운용세목, 이자, 기한 등을 정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한편, 보통 우리나라와 외국인 자유무역협정을 FTA라고 하는데, 한-메르코수르의 TA(Trade Agreement : 무역협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FTA와 거의 유사하다(출처; 산업부통상교섭본부, 알고보면 쓸모있는 통상용어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https://blog.naver.com/tongsangnews/221609577328>)

4) 온난습윤기후(temperature humid climate). 주로 중위도에 나타나는 온대기후는 대륙의 서안에 위치하는지 동안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 대륙 동안의 경우 온난습윤기후(Cfa)와 온대 겨울건조기후(Cw)가 나타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륙 동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여름에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한랭건조하다. 온난습윤기후는 주로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보이는 곳에 나타나며, 겨울에도 덜 건조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다. 여름의 경우, 아열대 해상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으로 열대기후와 비슷한 고온과 습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로 온난습윤기후를 아열대습윤기후(humid subtropical climate)라 부르기도 한다. 온난습윤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은 중국 동남부,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본 중남부, 미국 동남부, 남아메리카 동남부 등이다. 식생은 다른 온대기후와 비슷하게 낙엽수와 침엽수가 섞여 있는 혼합림이며, 연중 따뜻하고 습윤한 특성에 따라 상록 활엽수도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유명하며, 차 등의 재배도 활발하다. 남

광물자원이 부족하여 17세기 유럽 여러 나라에 의한 식민활동이 당초에는 왕성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팜파스<sup>5)</sup>(좁은 의미로는 아르헨티나에만 사용)라고 불리는 비옥한 목초지대에서 방목 가축의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18세기에 들어서 최종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1825년에 독립을 선언하였고 1828년에 건국한 이후 순조롭게 발전하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이웃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가장 번영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불황에 빠져 사회·경제 혼란을 계기로 1973년부터 1985년의 민정 이관까지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탄생하였다.

## 1.2. 정치·경제 개요

1985년 민정 이관 이후, 2005년부터 좌파 정당인 확대전선에 의한 정권이 3기 15년에 이어졌다. <표 1>에 나타낸 것처럼, 경제는 꾸준히 유지되어 국민 1인당 GDP는 17,120달러로 남미에서 최고가 되었다. 2019년 11월에 실시된 차기 대통령 결선투표에서는 야당인 국민당 후보인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Alberto Lacalle Pou)가 승리하여 2020년 3월 1일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표 1>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성장률(%)	7.5	4.1	6.5	7.2	4.2	7.8	5.2	3.5	4.6	3.2	0.4	1.7	2.7

자료: UN, 'National Accounts'.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표 2>와 같이 인구는 346만 명(2017년)이며, 국토면적은 남미에서 두 번째로 작다. 일본 국토면적<sup>6)</sup>의 절반 이하(0.47배), 우리나라보다는 1.75배 정도 넓은 면적에 해당하는 1,760만 헥타르이다<sup>7)</sup>. 국토의 대부분은 평지 또는 완만한 구릉지이며, 전체 면적의 82.1%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농지의 83%는 영년성 채초·방목지(영구초지·방목지라고도 한다)이다.

· 북아메리카의 경우 밀, 옥수수, 콩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기업적 농업과 대규모 목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적 목축이 발달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5) 팜파스(Pampas). 남아메리카 대륙 파라나 강 하류에서 아르헨티나 중남부까지 펼쳐진 광대하고 평탄한 초원 지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반경 500~700km로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데 내륙부는 건조하나 동부는 기름진 습윤 지역으로 밀 재배와 소 사육이 성한 아르헨티나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다. 내륙 건조 지대에서도 목축업이 활발하다. 팜파(Pampa)라고도 한다. 넓이 76만km<sup>2</sup>.(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사전, 2009. 3. 25., <https://terms.naver.com/>).

6) 일본 국토면적은 3,779만 7천ha(2017년 기준).(KOTRA 제공)

7)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3만 6,371.5ha(2017년 기준)(외교부 제공)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소 사육 마릿수는 인구의 약 3.5배인 약 1,200만 마리에 달한다. 또한, 수출용 농작물 생산이 번성하고, 우루과이 전체 수출액의 약 3분의 2를 농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표 2> 메르코수르 각국 개요

	인구	GDP 중 농수산업 점유율*	국민인 당 GDP*	수출농산물 점유율	국토면 적(A)	농지면 적(B)	그 중 채초·방목 지	(B)/(A)	삼림면적
연도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단위	백만명	%	달러	%	백만ha	백만ha	백만ha	%	백만ha
브라질	209.3	5.2	9,821	36.5	851.6	235.9	172.6	27.7	493.5
아르헨티나	44.3	6.7	14,400	56.6	278.0	148.7	108.5	54.3	27.1
파라과이	6.8	20.0	4,322	62.6	40.7	21.9	17.0	54.0	17.0
우루과이	3.5	5.7	17,120	65.5	17.6	14.5	12.0	82.1	1.8
(참고)일본	127.5	1.1	38,220	0.6	37.8	4.4	-	11.8	25.0

자료: FAOSTAT, ‘Populaton’, ‘Trade’ 및 ‘Inputs’ 은 UN, ‘National Accounts’. 下保 暢彦, ‘第 4 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 3 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2. 주요농산물 국내 수급균형

우루과이의 농업생산은 <표 3>과 같이 자급률이 100% 전후 또는 100% 미만인 자급적인 농산물(일부 수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급률이 100%를 크게 초과한다. 즉, 국내 생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수출지향성이 높은 농산물이 많다.

수출지향성이 높은 농산물은 수출지향성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부류에는 감자류, 채소, 과일, 닭고기 등이 해당되며, 수출지향성이 높은 농산물에는 곡물(쌀, 밀, 보리(맥주보리), 콩(대두 제품 제외), 유제품, 쇠고기, 양고기 등이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수출지향 농축산물(‘수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표 3〉 주요 식량의 국내 수급 균형(2011-13년 평균)

품명	국내생산량(A)	순수출량(B)	국내수요량(C)	수출비율(B)/(A)	자급률(A)/(C)
	천 톤	천 톤	천 톤	%	%
곡류 계	3,533	2,212	1,434	63	246
쌀(정미)	1,167	1,078	89	92	1,303
밀	1,510	1,126	584	75	258
보리	249	214	28	86	889
감자류	172	- 63	234	- 36	73
콩	2,680	2,578	197	96	1,362
@대두유	8	- 21	25	- 245	33
@대두박	36	- 42	79	- 117	46
채소	171	- 51	25	- 245	33
과일	506	55	454	11	112
우유	2,259	512	1,763	23	128
@탈지분유	628	322	311	51	202
@버터	28	23	5	82	610
@치즈	86	45	35	52	246
@유장	359	361	36	101	1,001
육류	661	398	263	60	251
쇠고기	496	398	98	80	507
양고기	43	15	28	35	154
돼지고기	17	- 33	50	- 195	34
닭고기	96	11	84	12	113

주: 1. @는 유래의 제품(가공품)을 의미함.

2. 순수출량=수출량-수입량. (-)은 수입량이 더 많은 것을 나타냄.

자료: FAOSTAT 'Food Balance'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3. 수출농산물 수급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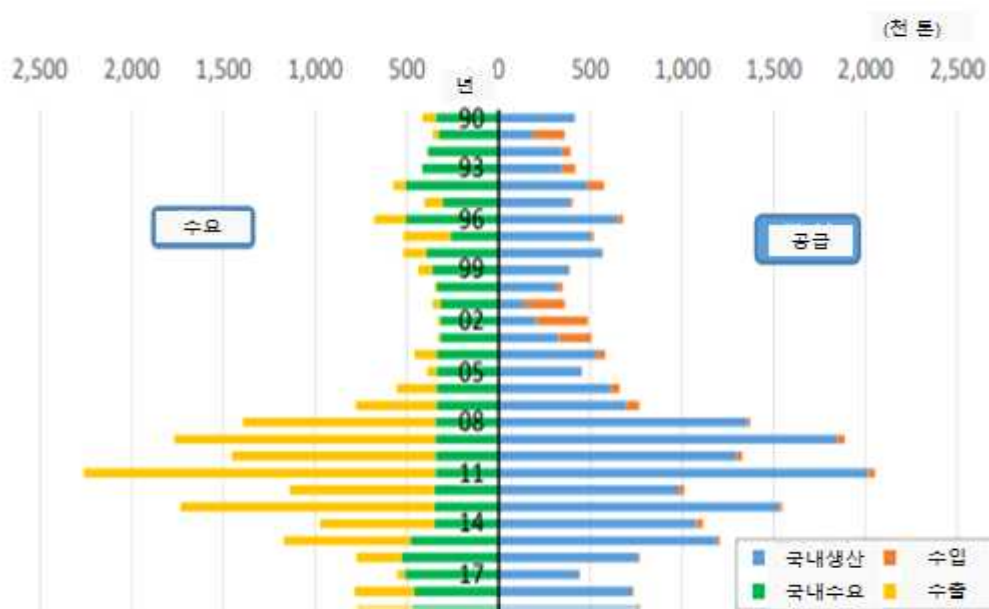
다음으로 네 가지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해 미국 농무부(USDA)의 PSD(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데이터를 이용하여 30년 동안(2019년에 대해서는 예측)의 시간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생산량이 많고 수출 비율이 높은 밀, 쌀, 콩, 쇠고기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그림 1~그림 4>를 작성하였다. 그림에서 중앙 세로축을 사이에 두고 좌측이 수요량(국내 수요 및 수출), 우측이 공급량(국내 생산 및 수입)을 나타내는 가로 막대그래프를 볼 수 있다. 해당 그래프는 재고 변동이나 통계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래 세로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한다.

#### 3.1. 밀

국내 수요량은 약 50만 톤 전후<sup>8)</sup>로 곡물 중 국내 수요량이 가장 큰 밀은 2005년 경까지는 수출지향보다 오히려 자급적 농산물이었다.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해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급속히 생산이 확대되어, 수출도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과거 최고인 192만 톤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그림 1> 밀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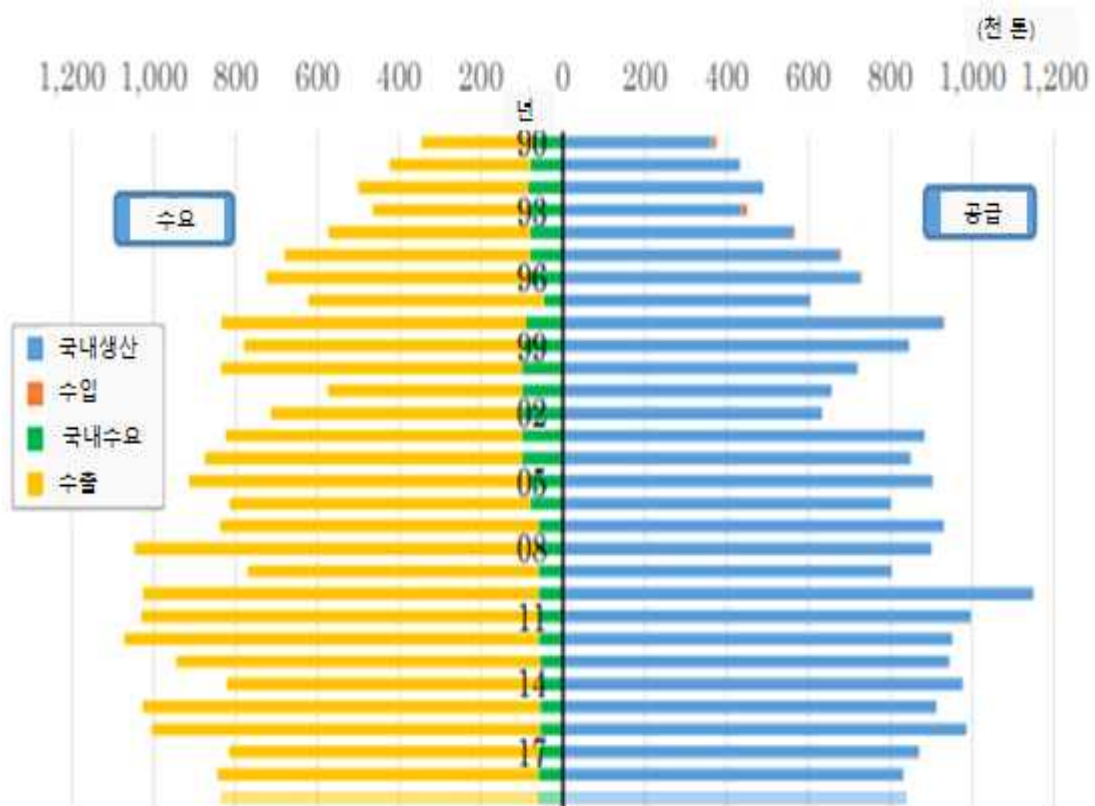
자료: 미국 농무부 'PSD'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8) <표 3>에서는 58만 톤이지만, FAO와 USDA 등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계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차이가 축소되고 있지만, 1997~2014년은 차이가 크다. 확실한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식용 수요만을 계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3.2. 쌀

쌀의 국내 수요는 6~10만 톤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전부터 수출 농산물로서 수십만~100만 톤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최근에는 80~100만 톤 정도를 수출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쌀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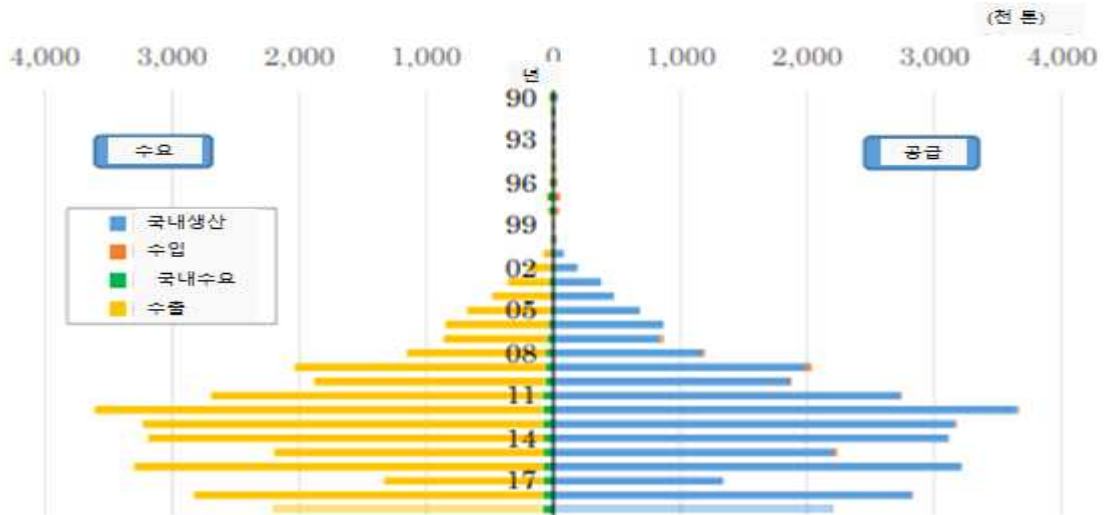


자료: 미국 농무부 'PSD'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 4 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 3 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3.3. 콩

최근에 최대 경종작물이 된 콩은 2000년대 이전에는 재배가 왕성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아르헨티나 자본 유입(목초지의 구입, 임차)으로 생산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국내 수요(가공용을 포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산된 콩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그림 3> 콩 수급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 ‘PSD’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3.4. 쇠고기

광대한 채초·방목지를 배경으로 한 목축업에서는 이전부터 쇠고기 생산이 활발하였다. 쇠고기는 국민의 주요 식량인 동시에 중요한 수출 상품이다. 수출량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4> 쇠고기 수급 추이



주: 1996년의 수출량 데이터가 누락되었다고 생각됨.

자료: 미국 농무부 ‘PSD’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4. 토지이용 차원에서 본 농축산물 상황

국토의 82.1%에 해당하는 1,447만 ha의 농지 내역을 보면, 국토의 대부분이 구릉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농작물의 작물 경작지는 17%(247만 ha)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83%가 영년 채초·방목지이다(표 4 참조).

〈표 4〉 농지 내역(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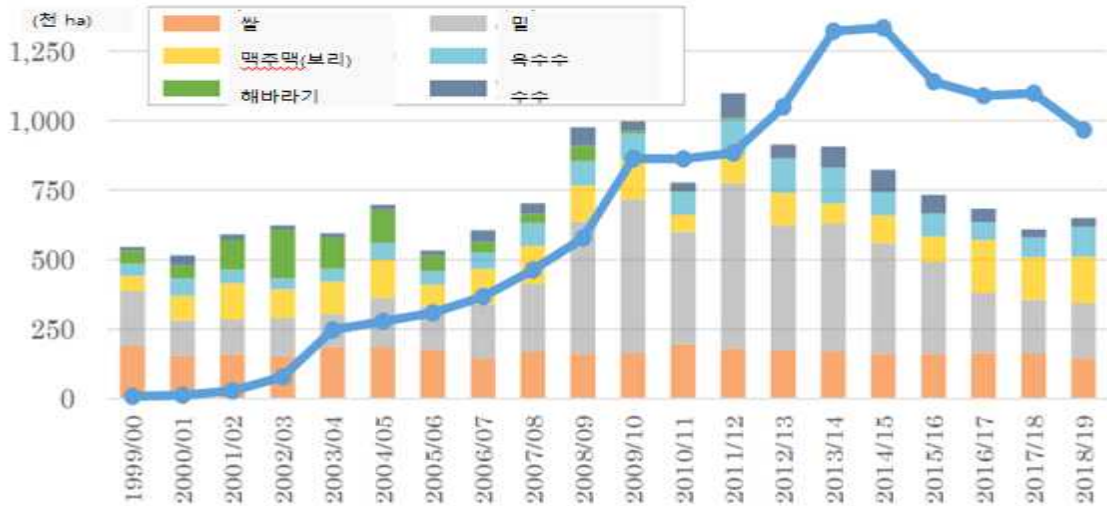
항목명	(오리지널 명칭)	면적 (천 ha)
농지	Agricultural land	14,469
그중 농작물 경작지	Cropland	2,469
경지	Arable land	2,430
단년생 작물	Land under temporary crops	1,700
단년생 목초지	Land under temp. meadows and pastures	540
휴경지	Land with temporary fallow	190
영년생 작물	Land under permanent crops	39
그 중 영년 채초·방목지	Land under perm. meadows and pastures	12,000
경작 채초·방목지	Perm. meadows & pastures - Cultivated	1,500
천연초지·방목지	Perm. meadows & pastures - Nat. growing	10,500

자료: FAOSTAT, 'Inputs'.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주요 작물(콩 및 곡물 이외에 유채씨, 고구마, 사탕수수 등)의 작부면적을 우루과이 농목수산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콩과 그 이외의 곡물로 나누어 보면, 〈그림 5〉와 같다.

꺾은 선으로 나타낸 콩을 보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어 2012년 이후 콩 이외의 작물의 합계보다 많아졌다. 수출작물인 쌀은 대략 15~18만ha로 추이하고 있다. 밀은 2010년 전후에는 50만ha를 넘는 해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20만ha 전후로 추이하고 있다. 대신 맥주보리(보리) 작부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까지는 유량종자로 해바라기가 재배되었으나 현재는 없다.

<그림 5> 주요작물의 작부면적 추이



주: 이 그림에서는 콩의 작부 면적만을 꺾은 선으로 따로 표시하고 있지만, 작부 면적이라는 같은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콩도 적재 막대 그래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일 수 있음. 그 경우 콩의 변동만이 강조되어 다른 작물의 변동이 불선명해지므로 일부러 이와 같은 그래프로 만들었음.

자료: 우루과이 농목수산성 ‘통계연보’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5. 무역측면에서의 농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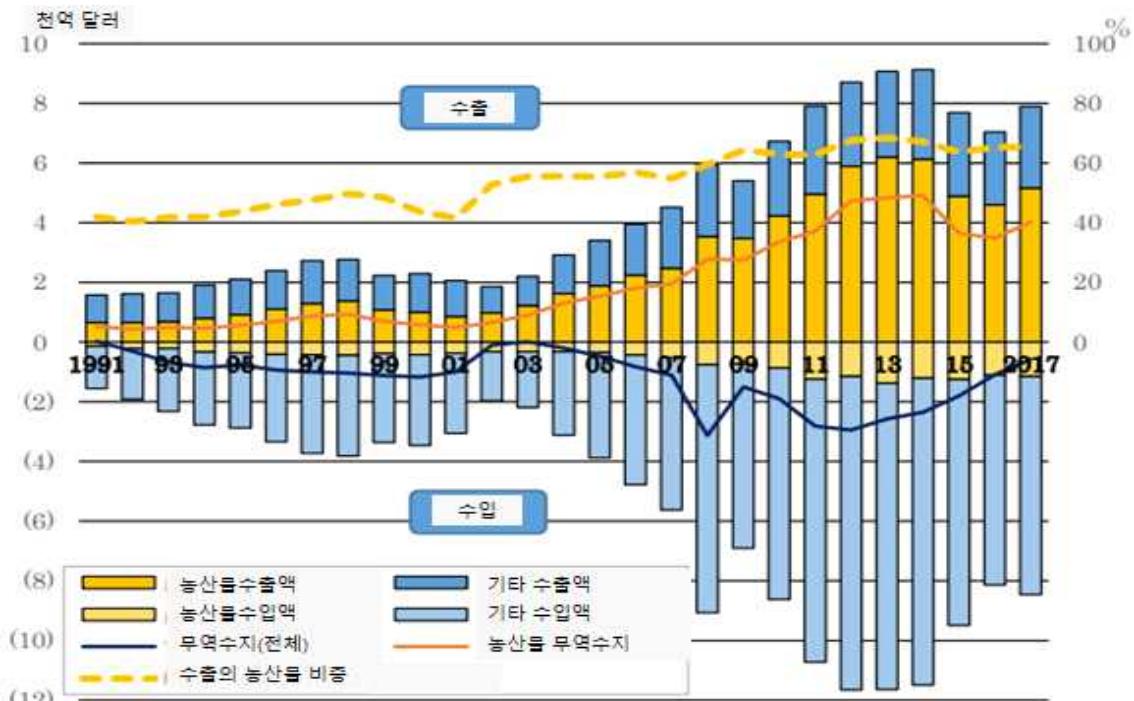
### 5.1. 전체 상품 무역에서의 농축산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로 최근 우루과이의 전체 상품무역액을 보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에서 보면, 수출이 70~90억 달러, 수입이 90~12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매년 20억 달러 전후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에서는 농축산물의 수출액 및 비율이 높고, 또한 상승 경향에 있다. 최근에는 수출액 비율이 65%를 넘고 있다.

한편, 농축산물 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한정적이다. 농축산물만의 무역수지를 보면, 매년 4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내고 있다. 농축산물이 우루과이의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루과이에는 11개의 경제특구(면세지역)가 있다. 이들 경제특구를 통해 수출되는 물량은 FAO를 포함한 국제통계에 계상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의 분석에 의하면, 특구로부터의 무역을 포함할 경우 수출액이 전체적으로 15억 달러 전후로 커진다고 한다. 즉, 실제 무역수지는 균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무역액 추이



자료: FAOSTAT, 'Trade'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5.2. 개별 농축산물

수출품목을 HS코드 4자리수의 레벨에서 보면, <표 5>와 같다. 상위 10위까지는 농림축산품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품의 비율도 75% 전후로 높다. <표 6>과 같이 수입 농림축산물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6% 정도로 낮다.

<표 5> HS 코드 4자리수에 의한 수출 상위 품목

순위	HS코드	품목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수출총액(백만 달러)			9,165.7	7,669.5	6,963.6	7,889.4	7,498.0	7,837.2
1	0202	냉동쇠고기	1,037.2	1,057.9	1,060.3	1,130.3	1,279.5	1,113.0
2	1201	콩	1,620.8	1,122.0	857.2	1,200.4	526.8	1065.5
3	4403	원목	439.3	570.7	566.3	695.1	754.5	605.2
4	1006	쌀	513.1	361.4	413.8	459.4	394.0	428.3

순위	HS코드	품목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5	0402	농축·기당유(분유)	381.8	357.5	362.8	379.7	458.4	388.1
6	0201	신선·냉장 쇠고기	401.8	364.6	376.7	373.2	346.9	428.3
7	0102	생우	140.1	145.6	195.8	221.1	271.0	194.7
8	1107	몰트	186.6	127.8	158.3	182.8	193.8	169.9
9	4104	처리 우피	184.0	184.2	148.2	150.3	130.1	159.4
10	0406	치즈	241.4	140.8	121.9	129.2	120.9	150.8
〈참고〉농림축산물 비율* (%)			75.8	74.1	76.6	76.4	74.0	

자료: UN, 'Comtrade'. 농림축산물 비율은 우루과이 농목수산물성 「통계연보(2015-19 매년)」에 의함.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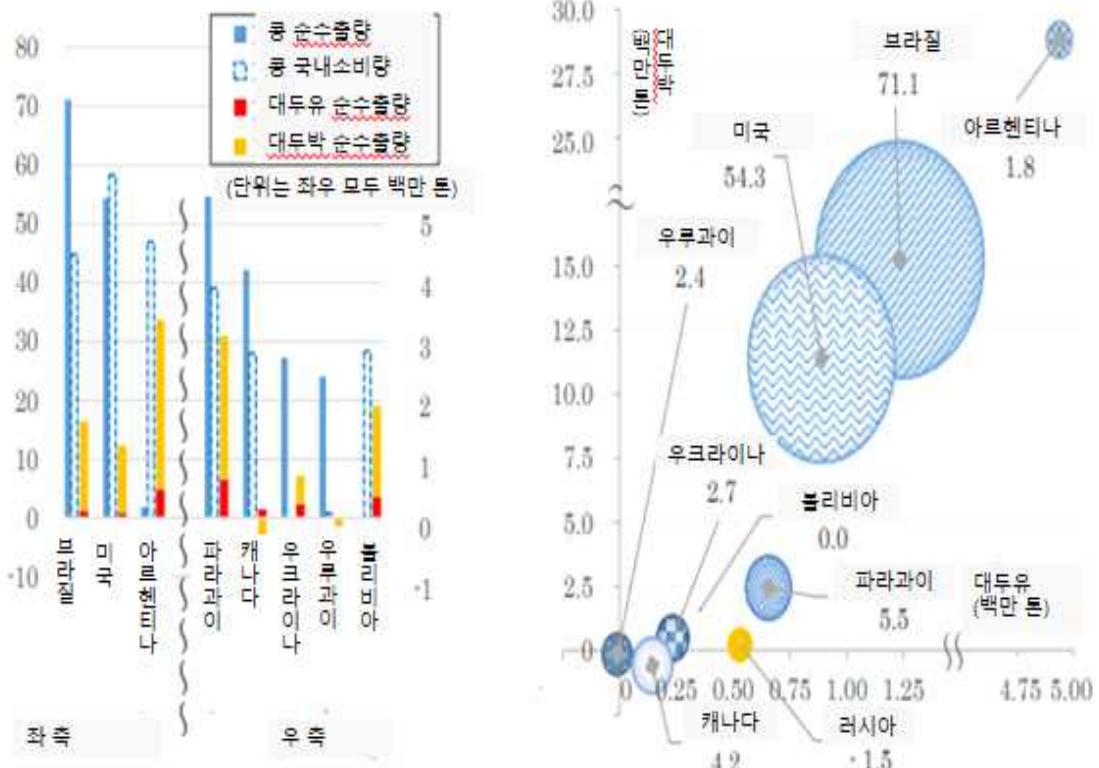
〈표 6〉 HS 코드 4자리수에 의한 수입 상위 품목

순위	HS코드	품목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수입총액(백만 달러)			10,762.3	9,489.4	8,136.6	8,457.9	8,893.2	9,147.9
1	2709	원유(原油)	1,341.0	818.1	677.5	219.2	1,122.2	835.6
2	8703	승용자동차	387.4	368.8	322.1	409.4	330.0	363.5
3	8517	전화기 등	381.5	273.8	283.9	315.7	305.2	312.0
4	8704	화물자동차	222.6	174.4	160.1	213.9	169.7	188.2
5	3808	살충제·제초제 등	213.5	145.2	121.7	147.0	164.5	158.4
6	3004	의약품	137.2	149.3	150.3	147.3	157.7	148.3
7	8708	자동차부품	200.5	131.9	60.1	109.9	147.2	129.9
농산물	0903	마테차	101.7	89.3	71.5	69.0	74.4	81.2
	0203	돼지고기	76.3	71.8	72.8	89.7	82.9	78.7
	1005	옥수수	51.7	44.4	34.3	54.2	121.9	61.3
〈참고〉농림축산물 비율* (%)			5.3	5.6	5.8	5.8	8.0	

자료: UN, 'Comtrade'. 농림축산물 비율은 우루과이 농목수산물성 「연차통계보고(2015-19 매년)」에 의함.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또한 주요 수출품목인 콩에 관해서는 다른 수출국에 비해 우루과이에는 특징적인 점이 있다. 콩 및 콩제품(대두유 및 대두박)의 국제무역에서 순수출국인 브라질, 미국, 그 다음으로 파라과이, 캐나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7개국(2016-18년 평균 콩 순수출량 기준)과 볼리비아(콩 순수출량은 크지 않지만 콩제품 순수출국) 등이 국가이다.

<그림 7-A, 7-B> 콩 수출국의 콩 및 콩 제품 순수출량(2016-18년 평균)



주: 그림 7-B(버블 차트)에서 버블의 크기와 그림 안의 계수는 콩(자실)의 순수입물량(1백만 톤)을, 버블의 색상은 파랑이 콩(자실)의 순수입국, 노랑이 순수입국임을 나타낸다.  
 비교: 그림 7-A(막대그래프)에서 왼쪽 3개 국가와 오른쪽 5개 국가의 스케일이 다름(10배), 그림 7-B에서 아르헨티나가 가로세로 양축으로 점프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기 바람.  
 자료: 미국 농무부, 'PSD'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이들 순수출국의 콩(자실, 子實) 및 콩제품별 순수출량을 보면, <그림 7-A 및 그림 7-B> 와 같이, 브라질과 미국은 콩 자실에 대해서도 제품에 대해서도 순수출 대국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제품에 대해서는 2대 수출국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이다. 한편 우루과이는 순수출 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대두유 및 대두박에 대하여 순수입국으로 되어 있다(캐나다는 대두박이 순수입국).

우루과이가 대두유 및 대두박에 대하여 순수입국인 이유는 콩 생산이 우루과이에 서 본격적으로 급증한 것이 2000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국내 착유를 비롯 한 콩가공업이 미숙하다는 공급면의 제약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대두유에 대한 수요는 식용이지만, 인구 규모에 따른 수요량과 사료용이 중심인 대 두박의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루과이 축산업은 방목에 의한 소, 양 등 대가축이 중심이며, 농후사료를 필요로 하는 중소가축은 그 다지 활발하지 않다는 점 등을 요인으로 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하는 인센티브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 6. 무역상대국

### 6.1. 전체 무역

<표 7>과 같이 수출입 모두 중국, 브라질, EU, 아르헨티나, 미국과의 거래가 많다. 일본과의 무역은 매우 작다. 수출의 경우 국내의 경제특구에 대한 물품이 10억 달 러 전후이며, 전체의 10~2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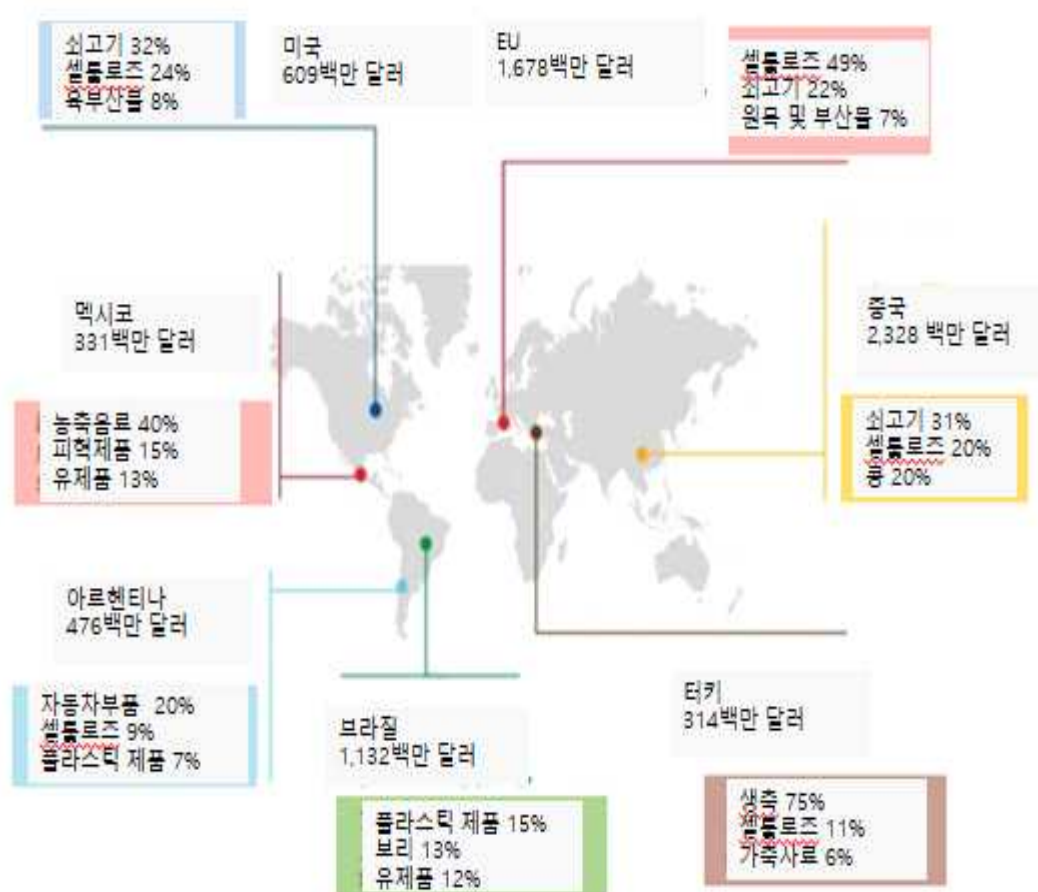
또한 <그림 8>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제특구로부터의 거래를 포함하여도, 수출 상 대국의 경향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표 7> 무역 상대국

순 위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국명	2016	2017	2018	국명	2016	2017	2018
1	중국	891	1,481	1,500	중국	1,532	1,694	1,678
2	브라질	1,198	1,299	1,133	브라질	1,462	1,646	1,641
3	경제특구	1,314	1,296	951	EU	1,461	1,309	1,118
4	EU	908	867	835	아르헨티나	1,084	1,064	1,102
5	미국	452	458	457	미국	565	923	708
6	아르헨티나	364	437	409	나이지리아	237	187	365
-	일본	10	9	10	일본	60	65	60

자료: UN, 'Comtrade'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 4 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 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 3 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 에서 재인용

<그림 8> 경제특구 포함 주요 수출 상대국 및 수출 품목(2018년)



자료: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 'Foreign Trade Report 2018'.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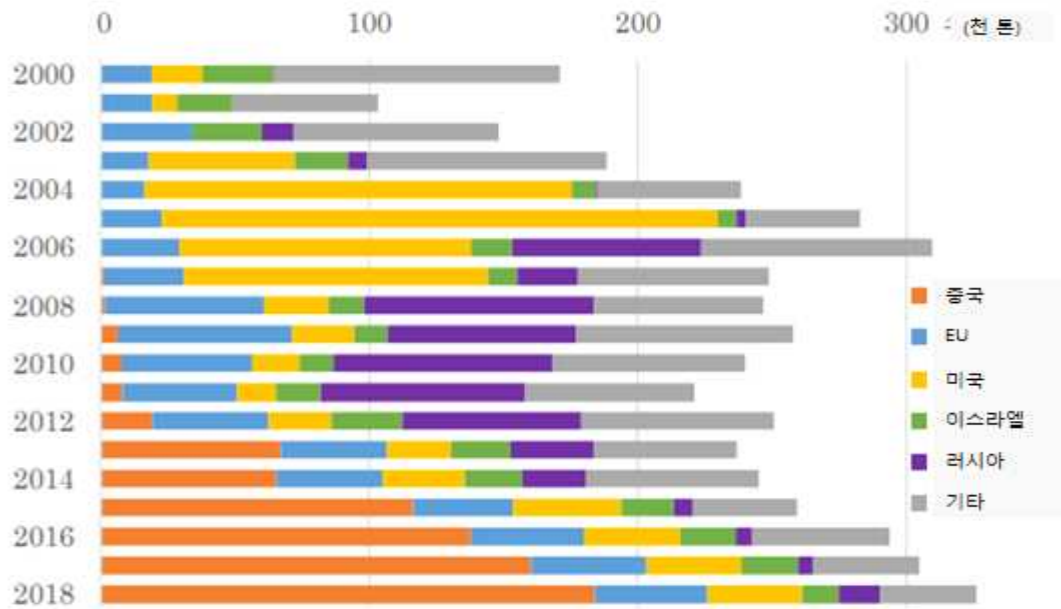
## 6.2. 주요 농산물 수출 상대국

다음으로 수출 상위 농축산물인 쇠고기, 콩, 쌀에 대해서 각각의 수출 상대국의 변천을 정리해 본다.

### 6.2.1. 쇠고기(HS코드: 0201 및 0202)

<그림 9>와 같이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부터 2010년경까지 주요 상대국이었던 미국이나 러시아로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때 수출량 전체가 감소하는 경향에 있었다. 그러나, 2010년경부터 중국 수출이 급증하여 2018년에는 18.4만 톤으로 전체의 56%(중량 베이스)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EU에 대해서는 최근 몇년간 4만 톤 전후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최근 증가 경향에 있다.

<그림 9> 쇠고기 수출 대상 국가별 수출량 추이



자료: UN, 'Comtrade'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 4 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 3 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표 8> 국가별 수송형태별 쇠고기 수출

국가	년도	0201 신선냉장 쇠고기			0202 냉동 쇠고기			쇠고기 계	
		수출량	수출액	단가	수출량	수출액	단가	수출량	수출액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천 톤(%)	백만 달러(%)
중국	2017	0.01	0.1	10.2	160.2	606.5	3.8	160.2 (532)	606.6 (40)
	2018	0.01	0.1	9.5	183.9	728.1	4.0	183.9 (56)	728.2 (45)
EU	2017	27.2	261.7	9.6	15.7	107.1	6.8	42.9 (14)	368.7 (25)
	2018	25.8	251.3	9.7	16.1	113.6	7.0	41.9 (13)	365.0 (22)
미국	2017	2.4	26.6	11.1	33.5	164.2	5.0	35.4 (12)	190.8 (13)
	2018	1.5	17.6	11.4	33.7	177.5	5.2	35.3 (11)	194.7 (12)
이스라엘	2017	0.00	0.01	5.8	21.0	118.4	5.6	21.0 (7)	118.4 (8)
	2018				13.6	84.3	6.2	13.6 (4)	84.3 (5)
러시아	2017	0.2	2.6	11.3	5.6	13.6	2.4	5.9 (2)	16.3 (1)
	2018	0.3	3.6	10.7	14.9	52.0	3.5	15.3 (5)	55.6 (3)
세계 계	2017	42.1	373.2	8.9	262.6	1,130.3	4.3	304.7 (100)	1,503.5 (100)
	2018	38.5	346.9	9.0	287.4	1,279.5	4.5	325.9 (100)	1,626.4(100)

주: 쇠고기 계의 ( )내는 전체에 대한 국가별 점유율임.

자료: UN, 'Comtrade'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 4 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 3 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세계의 쇠고기 무역(수출)에 있어서의 우루과이의 위상을 보면 <표 9>와 같다. 우루과이의 2018년 쇠고기 수출량은 100만 톤을 넘는 수출대국인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30~40만 톤 대의 그룹에 속하여, 세계 제11위에 위치한다. 수입량을 공제한 순수출량으로 보면,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가 순위를 내려가고 우루과이는 제8위이다.

<표 9> 쇠고기 순수출량 국가별 순위(2018년)

순위	국명	순수출량 (천 톤)	순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량 (천 톤)	수출액 (백만 달러)
1	브라질	1,319.0	5,231.1	1,353.7 (1)	5,458.2
2	오스트레일리아	1,138.6	6,455.9	1,140.6 (2)	6,467.9
3	인도	1,111.0	3,382.7	1,111.0 (3)	3,382.7
4	뉴질랜드	429.2	2,110.8	435.4 (6)	2,143.2
5	폴란드	368.1	1,640.4	390.5 (7)	1,730.7
6	아르헨티나	351.9	1,895.7	365.7 (9)	1,931.9
7	아일랜드	312.1	2,205.0	373.3 (8)	2,338.9
8	우루과이	309.7	1,562.8	325.9 (11)	1,626.4
9	파라과이	249.2	1,067.6	260.5 (13)	1,099.2
10	캐나다	214.8	1,093.9	351.2 (10)	1,911.5
11	벨라루시	131.2	483.9	150.7 (18)	543.7
12	나카라과	111.9	480.3	112.0 (20)	481.0
..					
15	네덜란드	63.8	933.6	445.0 (5)	2,904.8
17	미국	47.1	2,000.0	1,014.2 (4)	7,281.9

주 1: 순수출량(액)=수출량(액)-수입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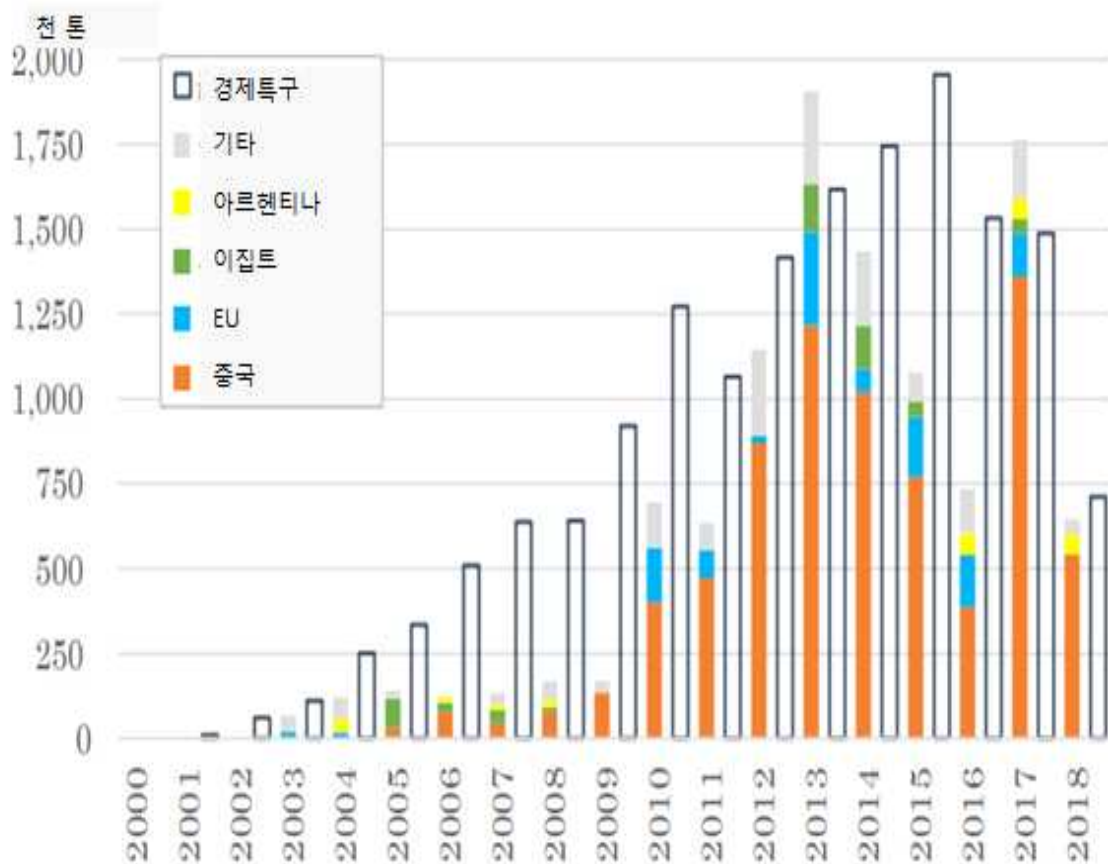
2: 수출량 란에서의 ( )내 숫자는 수출량 순위임.

자료: UN, 'Comtrade'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6.2.2. 콩 (HS코드: 1201)

2000년대에 들어 생산·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콩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특구 전용 수출이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 콩의 수출처 국가별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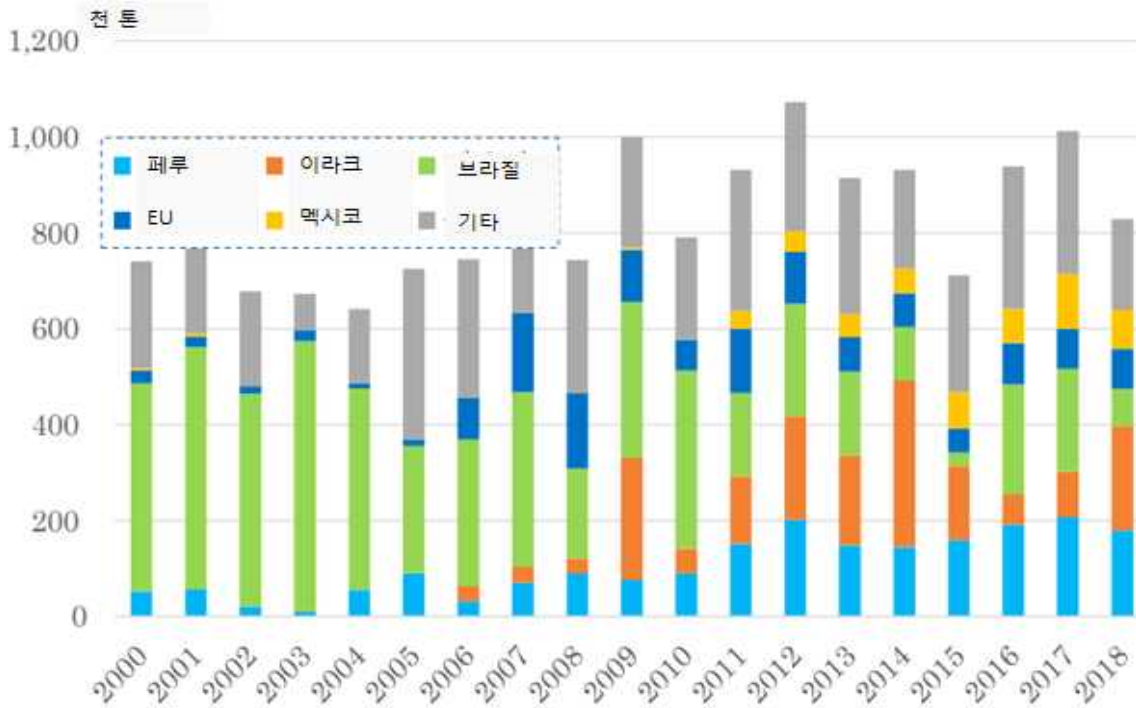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그림 10>에서 오른쪽의 흰색이 경제특구 수출이며, 왼쪽의 색깔이 있는 막대그래프가 통관을 통한 각국 수출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 수출에서는 80% 전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의 분석에 의하면, 경제특구를 통한 수출도 포함하여 2019년의 콩 수출액은 1,002백만 달러이다. 그 중 중국 수출 비율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트렌드에는 큰 차이가 없다.

### 6.2.3. 쌀 (HS 코드: 1006)

쌀은 <그림 11>과 같이 과거 과반을 차지했던 브라질 수출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수출지가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페루와 이라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1〉 쌀의 수출처 국가별 수출량 추이



자료: UN, 'Comtrade' 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7. 일본과의 무역

2019년 일본의 우루과이와의 무역은 <표 10>과 같다. 수출액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53억 엔 남짓이며, 수입액이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26억 엔 정도이다. 일본 전체 무역액이 약 118조 엔 남짓한 점을 감안하면, 거래관계는 극히 근소한 편이다(무역 상대국가로써 수출에서 118위, 수입에서 115위).

우루과이로부터의 수입에서는 <그림 12> 및 <그림 13>과 같이 농림수산품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2016년까지 50억 엔 정도를 기록하고 있던 화학제품으로 대표되는 기타(공업제품 등)의 수입이 2018년을 기점으로 급감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농림수산품이 수입전체의 9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농림수산물 수입에서는 쇠고기가 2019년 2월 수입해제 후, 일약 수입 톱 품목이 되었다. 수치로 보면, 일본의 쇠고기 수입액은 13.6억 엔으로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의 4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본 수입 쇠고기 중 우루과이의 점유율은 <표 11>과 같이 0.2%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일본에서 우루과이로의 농림수산물 수출은 8,818만 엔(2019년)으로 전체 수출의 1.5% 정도이다. 이 중 대부분이 어개류(정어리 0303.53-000 등)이다.

<표 10> 일본과 우루과이와의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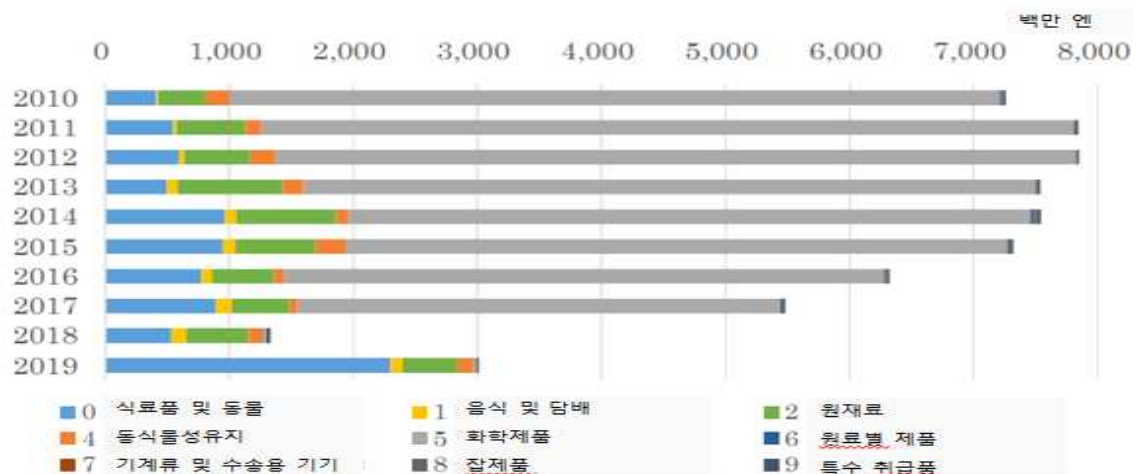
개항품목			2016	2017	2018	2019
<b>일본에서 우루과이로의 수출 합계 (백만 엔)</b>			6,118.2	7,073.4	9,060.7	5,760.0
*	0	식품 및 동물	3.1	25.9	68.8	88.2
	705	수송용 기기	1,102.6	1,606.0	1,957.9	1,612.3
	701	일반기계	1,346.3	1,564.2	1,738.3	1,270.2
	703	전기기기	1,079.7	1,088.9	1,179.3	1,138.8
	20501	합성고무	983.4	1,144.5	566.7	320.2
<b>일본의 우루과이로부터 수입 합계 (백만 엔)</b>			6,325.3	5,486.4	1,336.2	3,017.2
*	00301	쇠고기	-	-	-	1,364.8
*	21103	양모	475.4	428.8	434.8	400.5
*	00701	어개류	395.9	514.0	167.6	342.5
*	10303	제조담배	77.9	12.0	95.1	60.8
*	01101	과일	41.2	34.5	53.9	39.1
*		기타 농림수산물	444.6	444.8	489.8	749.1
		기타(공업제품 등)	4,890.3	3,952.3	95.0	60.4
		농림수산품의 비율 (%)	22.7	28.0	92.9	98.0

주: (1) 현황품이란 재무성 '무역통계'가 정의하는 분류.10의 대분류(코드 1 자리수)가 더욱 세분화(코드 3 자리수, 5 자리수, 7 자리수)되고 있음.

(2) \* 는 농림 수산물.농림수산품의 대상은 현황품 대분류의 '0 식료품 및 동물' 및 '1 음료 및 담배'의 전체와 '2 원재료' 및 '4 동식물성 유지'에서 비농림 수산물로 사료되는 수입 실적이 있는 코드 3자리수 베이스의 현황품(「209 펄프 및 고지」, 「213 조광물」, 「215 금속광 및 찌꺼기」 및 「405 가공유지 및 밀랍」)을 제외하고 집계했음.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국가별 개항품 별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프로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그림 12> 우루과이로부터의 개항품(대분류)별 수입액



주: 개항품(대분류)에는 이 그림의 항목 외에 우루과이로부터 수입 실적이 없는 '3 광물성 연료'가 분류되고 있다.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프로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그림 13> 우루과이로부터의 농림수산물 수입액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표 11> 일본의 국가별 형태별 쇠고기 수입량(액)

	2018				2019			
	수입수량(점유율)		수입액	단가	수입수량(점유율)		수입액	단가
	천 톤	%	십억 엔	엔/kg	천 톤	%	십억 엔	엔/kg
0201 냉장쇠고기	278.8	100.0	232.5	834	274.9	100.0	231.6	843
오스트레일리아	127.4	45.7	105.6	829	125.2	45.5	105.4	842
미국	136.5	49.0	113.8	833	126.9	46.2	107.1	844
캐나다	5.3	1.9	3.6	682	10.9	4.0	7.6	701
뉴질랜드	6.4	2.3	6.4	1,003	6.8	2.5	6.9	1,015
멕시코	3.1	1.1	2.9	934	3.9	1.4	3.2	813
폴란드	-	-	-	-	-	-	-	-
우루과이	-	-	-	-	1.1	0.4	1.2	1,075
기타	0.1	0.0	0.2	2,995	0.1	0.0	0.2	2,847

	2018				2019			
	수입수량(점유율)		수입액	단가	수입수량(점유율)		수입액	단가
	천 톤	%	십억 엔	엔/kg	천 톤	%	십억 엔	엔/kg
0202 냉동쇠고기	328.6	100.0	151.5	461	340.5	100.0	152.8	449
오스트레일리아	184.2	56.1	83.5	453	168.3	49.4	77.7	461
미국	110.9	33.8	51.7	466	114.1	33.5	48.6	426
캐나다	15.9	4.8	6.6	412	32.0	9.4	13.4	420
뉴질랜드	7.5	2.3	4.9	648	11.7	3.4	6.4	549
멕시코	9.4	2.9	4.4	474	10.6	3.1	4.8	451
폴란드	0.3	0.1	0.2	580	1.8	0.5	0.9	521
우루과이	-	-	-	-	0.3	0.1	0.2	697
기타	0.3	0.1	0.2	759	1.7	0.5	0.8	502
쇠고기 합계	607.5	100.0	383.9		615.4	100.0	384.5	
오스트레일리아	311.7	51.3	189.0		293.5	47.7	183.0	
미국	247.4	40.7	165.5		241.1	39.2	155.7	
캐나다	21.3	3.5	10.2		42.9	7.0	21.1	
뉴질랜드	13.9	2.3	11.3		18.6	3.0	13.4	
멕시코	12.4	2.0	7.3		14.5	2.4	8.0	
폴란드	0.3	0.1	0.2		1.8	0.3	0.9	
우루과이	-	-	-		1.4	0.2	1.4	
기타	0.4	0.1	0.4		1.7	0.3	1.0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작성.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8. 맺음말

우루과이는 남미의 작은 나라이며, 일본과의 무역에 관해서도 세계적으로나 남미의 나라 중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그 자연조건을 살

린 농목업이 번성한 지역이며, 최근 국가의 경제나 무역 측면에서 농목업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무역에서는 수출국에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남미의 인접국, 그 다음으로 EU 수출용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최대의 수출 상대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농축산품의 새로운 수출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 2월에 일본에서 우루과이산 쇠고기가 수입 해금된 것도 그 한 사례일 것이다.

일본이 우루과이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향후 우루과이가 이미 포화에 가까운 일본 쇠고기 시장의 수출처로서 중요시될지 혹은 쇠고기 시장 확대의 여지가 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쇠고기나 다른 농축산품 수출처로서 타겟으로 할지, 또는 일본과 메르코수르 무역 동향에 대한 진척이 있을지 등등 여러 요인이 아직은 불확실 상태이다.

이에 일본과 가깝고 최근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TA 형태로 예상)이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우루과이의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알아보기에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

## 〈부록〉 경제특구(Zona Franca/Free Zone)

우루과이 국내에 11개 있는 경제특구(자유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면세·비과세로 할 수 있다. 그 중 몇 개의 경제특구에서는 농림 관련 제조업이 활동하고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 수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셀룰로오스, 콩, 농축음료이다.



資料：ウルグアイ投資輸出促進庁 「Foreign Trade Report 2018」

자료: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 'Foreign Trade Report 2018'.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ー主要農畜産物の動向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이들테면 셀룰로오스는 우루과이(세관을 통과한)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원목(유칼리가 주)을 수출하여 경제특구에서 셀룰로오스로 가공되어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우루과이 통관에 의한 셀룰로오스 수출은 전무하며, 경제특구를 통해 100% 수출된다. 농축음료도 경제특구를 통한 수출이며, 콩도 52%가 경제특구를 통해 수출된다.

경제특구를 통한 수출을 포함하면 품목별 순위도 바뀐다. 아래 표와 같이 셀룰로오스나 농축음료가 상위에 랭크되는 한편, 원목은 셀룰로오스 원료로서 우루과이 통관에 의한 경제특구로의 수출이 상쇄되기 때문에 순위가 내려간다.

〈부록-표 1〉 품목별 수출액(통관·특구별 비율)

순위	품목	2017 (백만 달러)	2018 (백만 달러)	2019 (백만 달러)	2019 비율 (%)	2018통관·특구별 비율(%)	
						통관	특구
1	쇠고기	1,512	1,629	1,798	20	100	0
2	셀룰로즈	1,328	1,660	1,527	17	0	100
3	콩	1,188	526	1,002	11	48	52
4	유제품	587	682	649	7	100	0
5	농축음료	495	472	524	6	0	100
6	쌀	447	398	372	4	100	0

순 위	품 목	2017 (백만 달러)	2018 (백만 달러)	2019 (백만 달러)	2019 비율 (%)	2018통관·특 구별 비율(%)	
						통관	특구
7	원목	330	468	359	4	100	0
8	고기부산물	251	280	302	3	100	0
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97	233	235	3	100	0
10	볼트	184	203	216	2		
11	의약품	184	203	216	2	57	43
12	양모 및 그 생지	211	246	186	2	100	0
13	자동차부품	200	203	181	2		
14	피혁 및 그 제품	224	233	155	2		
수출총액(경제특구 포함)		9,048	9,080	9,146	100		
수출총액(경제특구 제외)		7,784	7,475	7,639			

자료: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 「Foreign Trade Report 2018」 및 「Informe Annual de Comercio Exterior 2019」.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프로研資料 第3号 (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산업부통상교섭본부, 알고보면 쓸모있는 통상용어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https://blog.naver.com/tongsangnews/221609577328>)

下保 暢彦, ‘第4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3号(2020.3)」, 農林水産政策研  
究所

ウルグアイ農牧水産省(MGAP), 「統計年報」(매년),  
(<http://www.mgap.gub.uy/unidad-organizativa/oficina-de-programacion-y-politicas-agropecuarias/publicaciones/anuarios-diea>)

ウルグアイ 投資輸出促進庁(Uruguay XXI), (2020), Informe Annual de Comercio  
Exterior 2019

ウルグアイ 投資輸出促進庁(Uruguay XXI), (2019), Foreign Trade Report 2018

ウルグアイ 投資輸出促進庁(Uruguay XXI), (2019), Free Zones Exports of  
Goods(<https://www.uruguayxxi.gub.uy/en/information-center/>)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

UN, ‘National Accounts’ (<https://unstats.un.org/unsd/snaama/Downloads>)

在ウルグアイ日本国大使館 홈페이지([https://www.uy.emb-japan.go.jp/itpr\\_ja/uruguay-jyoho.html](https://www.uy.emb-japan.go.jp/itpr_ja/uruguay-jyoho.html))

財務省, 「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search/futsu1.htm>)

駐日ウルグアイ大使館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site/jpemburujap/uruguay>)

米国農務省, ‘PSD’ (<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advQuery>)

FAO, ‘FAOSTAT’ (<http://www.fao.org/faostat/en/#data>)

FAO(Howard Elliott), ‘The strategic role of plant breeding in Uruguay: analysis  
through an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framework(2010)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사전, 2009. 3. 25.,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